대학원생 세미나 14.05. 26

리딩: Tickner, Arlene B., and Ole Wæver. 2009.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Worlding Beyond the West. Abingdon, Oxon ; New York: Routledge(발제: 이재현)

발제질문

-비서구 IR 의 이론적 특징들로 국가중심주의와 현실주의의 우월성과 이론적 연구의 부재가 제시되었는데, Tickner 가 제시한 이러한 경향의 원인들이 얼마만큼 적절한가? 또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향이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는가?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경우에는 구성주의이론의 수입과 연구의 동향이 두드러지는데, 비교적으로 한국의 IR 연구에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의 수입과 연구는 어떠한 수준인가?

-Inoguchi 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다양한 지적전통 (국가학, 역사주의, 막시즘, 미국식 IR)이 공존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의 훈련이 보통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상이하게 한국에서는 미국 IR의 영향이 패권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용채영: 일본의 경우, 덜 미국적이고 토착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갖는 이유, 언어적인 이유 큼. 일본학생들이 유학을 별로 안 감. 이노구치 챕터는 탈냉전 이후의 일본, 한국, 대만의 비교를 했는데 왜 비교를 했을까 의문. 아시아 전반의 경제민주화 등의 흐름 등 보여주려고 한 것은 있지만. 차라리 일본의 context만 깊게 썼더라면 좋았을 듯.

책의 5페이지에 나타난 표를 통해 저자들은 미국 대상이 주류, 비 서구 연구는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대표 4개 미국 저널들만 보고 통계화 냄. 미국 Best 4말고 다른 지역의 저널들 다 포함해서 보면 상이한 결과 나올 수도?

이재현: 이노구치의 논문은 2007년 논문 앞 부분 네 가지 나눈 것은 비슷. 약간 수정해서 한국, 대만을 넣은 듯.

전재성: 이노구치는 나이 많은 학자로서 아시아를 묶어서 부탁해서 쓴 듯. 특별히 학문적 이유보단 편집 상의 편의에 따라서 한 듯.

최인호: 왕양명을 넣은 이유? 인식론, 존재론은 다 했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음.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고 상정하는데, 성리학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명 대에 분파가 달라지면서 주관적. 하이데거, pragmatic한 지식추구를 함. 반면, 지식의 주관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좋은 주관성 논의했던 것처럼 자기의 특수한 position을 정해놓되, 실제 체험의 맥락을 넘어서서 많은 해석학적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여 보편적인 입장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같이 한 번 서양의 존재론, 인식론과 이 쪽의 발전사를 비교해볼 필요.

용채영: 저자들이 지문화적 인식론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적, 공간적인 범위, 지문화적인 특수성을 자르는 기준이 뭔지? 20세기 이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전근대까지 봐야 되지 않나? 저자들은 주변이 주변에만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논점을 제시하는데 각 연구자들이 일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Worlds를 구성하는 대로 다 구성하는가? 저자들의 평가대로 메타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서구의 인식론, 방법론을 수입하거나 논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이론적으로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동의. 그러나 동아시아 이론, 한/중/일 등의 아시아의 지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한 채로 메타이론적인 공유점을 찾을 수 있는지..

최인호: 국제정치권, 의미권의 문제.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왔고, 섞여있는지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의미권들 사이의 위계질서도 있을 수 있고, 권역들 사이. 우리는 권역들 안에 것만 이론화를 하는데,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 문명 정치라고 이야기 하지만. 동주의 전파이론이라는 것도 나름의 철학적인 배경이 있음. 동주 선생님 이론 + 그 안의 철학적인 배경이 뭔지 캐 나가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 권역-전파 이론 역시 소쉬르 구조주의에서 나옴. 언어체계가 가진 시간적인 logic이 있고, 공간적으로 퍼지는 전파의 logic이 있고, 이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봐도 재미있겠다는 생각.

조은정: 책을 보면서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생각함. 중심-주변부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적인 것처럼 논의하고, 중심이 하나인 것처럼 논의했음. 과연 중심이 하나일까? 지식사회학, industry라고 했을 때 누구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구성주의 이론이 과연 비판이론의 일부인지? 구성주의 이론이 현실주의 이론의 입장에서도 비판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성주의가 이론에서 구성주의인지, 방법에서 구성주의인지. 웬트 식의 thin 구성주의인지, 포스트 모던 식의 구성주의인지?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이론이 다 비판적인 것도 아니고. 기존 이론의 부합하지 않는 것이 비판적인 것이 아닌지, 누구의 시각에서 비판적인 것이 아닌지? 학문에 있어서도 worlding을 한다고 했는데. 일종의 mapping을 하는 것임. Mapping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느냐가 하나의 가정. 굳이 티크너나 위버. 발제 질문과 책의 질문이 평행선이 있다면, 비서구 국제관계학, 한국 국제정치학의 함의? 가장 비교정치학 하면서 함의에서의 조심하라는 함의. 단순히 mapping이 궁금해서 display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없다면.. mapping을 누구의 시각에서 늘어놓는 것인지? 중국 지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천하도가 그려지듯이, 이들이 객관적인 것처럼 mapping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재현: 불편함, 연구의 동향을 기술적으로 보는 것과 지문화적 인식론의 다양성, 그것들이 어떻게 과학사회학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학문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임. 이론적인 깊이는 1장과 결론에선 제시되는데 각 편집본 챕터의 저자들은 이론적 문제의식도 공동으로 보지는 않음. 비교할 때 조심스러웠던 부분, worlding보다는 mapping에 가깝다는 것도 공감 가능..

조은정: 이런 시도, 새로운 것은 아님. 탈식민주의 등 지역, 지정학 연구에서는 이미 많은 내용임. 시각의 차이에 따른 문제제기는 많이 있었던 이야기임. 왜 IR에서는 지금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가?

이재현: IR이 미국 사회과학이라는 것인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함. 여기서 벗어나는 것, 애매한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 개념, 이론 쪽으로 가보자.

조은정: 주변부의 학문적 동향을 살펴보자고 한다는 것, 이전에는 hegemony국가가 분명했을 땐 우리 중심으로 주변부 비교해보자라는 CP로 자리잡았는데, 지금 주변부로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으로 보고자 하는 것. 중심의 상대적인 decline으로 볼 수도 있나?

최인호: 주변부, 중심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저 쪽의 생각을 읽어야겠다는 것. 정치적 문제의식.

최인호: 비서구 국제정치학이 성공을 해서, 중국에서도 하나 뜨고, 한국이 하나 뜨고. 라틴, 이슬람도 하나씩 뜨면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듬. 미국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통일이 안 되어 있어도 global 담론. 계속 미국의 hegemony가 decline을 한다면? IR이 작게 생각하면 problem-solving theory이지만. 각 지역의 역사의 전개 방향 등을 새롭게 모형화해서 보여주는 것임. 일종의 담론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철학 리딩들의 영향,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개념들, sovereignty, anarchy, power 등. 다 뭔가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감정, 실천 등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 말의 logic도 있는데 생활세계적 감각의 차이가 맞물려서 설득력이 있다. 우리의 감정과 생활세계가 나온다, 상이한 것이 나온다.

조은정: 각 community의 내재적 필요성에 의해서? 외부에서의 지형이 그렇게 되어가고, 왜 이렇게 mapping이 되어가는가? International relation 우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느껴서 발로를 했다고 보는지?

최인호: 비서구 IR의 origin이 내부/외부에서 왔다기 보다면 IR의 패권적 담론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반성성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미국의 IR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조은정: 영국에서 유럽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유럽을 보면 CP했다고 함. 그런 구분이 유럽에서는 없음. CP/AP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미국적. 유럽에서 유럽 보는 것은 CP가 아님. 유럽인이 유럽을 볼 때 CP라고 보지 않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보는 한국인을 보면 서로 CP냐고 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낌. 뭔가 서로 수입된 것, 자기가 구성된 세계가 다르다는 것. Intellectual한 부분, 자기가 그리는 worlding이 충돌하는 것임.

저 쪽에서 배운 것을 갖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국제정치학 공부인지?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는데, 나는 한국정치 공부하는데 유학을 왜 가야하는지 고민.

이재현: 그래서 일본의 것이 재밌었음. 일본에서 training이 가능하다면, 학자의 성공, funding, 아카데미 성공과 밀접한 연관.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 중의 미국 또는 서구 IR의 메타이론적 편향, 비판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미국에서의 IR을 공부한 다음에 이를 돌아서 재생산하진 않을지는 생각.

최인호: 잭슨 책만 봐도, 각 지역의 맥락 의존적인 것과 매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뭔가 다른 IR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국적인 부분 섞인 요소. 그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지 미국에서 간 것은 다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이슈, 사례 주제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각각의 지역마다 중시된 것. 미국은 정체성이 문제, 패권유지 등이 문제. 다른 문제의식의 차이를 인정,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IR을 배우는 것은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님.

조은정: 특수적 보편성, 보편적 특수성 말장난이지만 뗄 수가 없음. 1950년대-60년대. 잘 나갈 때 프랑스. 영토 확장 등의 붙임이 있었지만 문화사적으로 혁명의 정신이 프랑스 branding을 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려고 했음. 소프트 파워. 폴란드, republic이라는 말이 처음 constitution에 들어감. 의미는 상실이 되었지만 프랑스의 republic이라는 사상이 유럽에 전파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전 유럽이 특수적인 보편성에 의해서 프랑스화된 것이 아닌가, 프랑스가 얼마나 크게 작동했는가? 나중에 수용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보면 그 프랑스성이 보편적이었음. Universal의 기제였고, 어느 순간 프랑스가 본인이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20세기 초반. 1945년도 사실상 승전국이라고 하지만 패전국이나 다름없이 몰락할 때에 프랑스를 대접을 아무도 안 해줌. 자신들은 nostalgic에 사로잡혀서 프랑스 예외주의, 보편주의를 알제리 등 구 식민지에 논의함.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트러블. 그 이후의 미국이 한 것도 프랑스가 18세기에 한 특수적 보편성, 보편적 특수성에 기반한 헤게모니 장악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어서 미국성과 프랑스성의 양자관계가 극으로 치달았음.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적 보편성에 대한 tension이 아니었나. 지금 우리의 국제관계학 지형도를 보았을 때 이행기인 듯. 중심 그리고 나머지 에서 나머지들이 부각되면서 중심이 떨어지거나, 중심이 내려가면서 주변이 부각되는 것도 있고. 보편/특수를 나누는 것. 나누기 어려움. 양면의 coin처럼 같이 움직인다. Coin의 어느 단면을 강조함에 따라서 보기 나름임.

최인호: 이런 학자의 지역에 따른 국제정치학과 좀 더 과학적, 보편적인 의미의 IR? 그대로 메타이론의 공부를 했더면 리딩들과 연계가 되는 듯. 객관적인 지식이 있나, 그렇다고 주관적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문제들도 해결하면서 타 지역의 문제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다른 문화, 언어권 사이의 communication이라고 봄.

담양수 이야기도 비슷함. 수/처/체/인/천리. 천리가 보편적인 것, 수처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곳을 따른다. 여기서 시작해서 보편적인 것을 체득해나간다는 것. IR도 그런 방향인 듯. 완전히 자기의 좁은 생활세계에 파묻히는 것도 문제이고, 객관적인 이론이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 좀 더 나의 맥락도 알고 나와 다른 지평에 존재하는 political actor들의 지평들도 이해하고 다시 나의 문제로 돌아오는 문제해결법 등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은정: 그런 면, 현실정치에서 찾으면, 중국의 경우가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인권, 중국 세 가지 측면에서 인권 이해. 맑시즘, 중국 유교주의 섞어서 우리 식의 중국식의 인권 담론 개발. 이후 서구와의 갈등이 많았음. 지금 그렇게 보면 중국이 상당 부분, UN의 level에서 논의할 때 중국 대표부가 나갔었는데 이제는 싸워도 나가진 않음. 서구,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정치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학문뿐만 아니라 interaction이 일어나면서 점점 진행중인 것이 아닌가.

전재성: 일관된 것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듯. 인도, 파키스탄 등. 이 편집본 자체가 또 다른 IR의 지형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편집은 중요한 듯. 챕터를 어떻게 정하는가, 편집자들에게 기본 개념, 편집 챕터 내의 소 제목들을 줌. Journal count는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한국 내의 IR의 저널들에 나온 article들을 현실, 자유, 구성으로 count나 문제제기? 그 자체가 서구적인 기준이 됨. 이 article처럼 동아시아에서의 주자학에서는 정치를 얼마나 분석할까 이전에 내 스스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김영민 선생님이 씀.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의 문제나 양명학, 자기를 가다듬으면 세상의 문제인지 라는 이론적 입장. 원래 우리가 가진 이론관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IR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쓸 필요도 있음. 이론, 이론의 메타이론의 수준 이해가 낮음. 편집 의도가 현안 분석 같은 것이 있음. 이것보단 더 나아간 챕터 쓴 사람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International Rel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할 때 지리적 외연이 다름. 미국은 미국의 외연이 넓히는 부분, 이 개념이 misleading함. 어느 한 학자가 international theory를 한다고 할 때 나라마다 범위가 다름. International=world라고 착각하는데 시간적인 span도 다름. 이스라엘의 IR이론은 이스라엘 주변, 중동은 중동 주변임. International theory라고 해도 다 다를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서구 국제정치가 확대되어서 국제법적 공동성 등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음. 이를 international level이라는 말로 혼동 가능.

Worlding. 미국 국제정치학, 영국 국제정치학이 왜 보편화되었는지 설명 못하면 Worlding이라는 말도 어려움. 미국 맨 뒤에 챕터가 있는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평면, 지역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보다는 미국이 메타적으로 IR에 깔리고 위에 비서구가 깔림. 미국이 먼저 깔린 배경을 설명하고 가야 함. 미국 국제정치학의 보편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미국적 특색을 설명하는 것만큼 중요함. IR=Americian Social Science라는 것 연구들이 지속. 영어의 문제, 영미 패권.

이론가, text이고 locutionary act라고 하는데. 한국은 한국의 경험을 갖고 이론화해서 하고 이게 더 잘 설명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쪽의 이론-현실 간의 고리, 이론화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함.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이미 미국의 지식패권이 지배적이고 textualized된 쪽에서 써야 함. 이론과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위치찾기가 중요. 그래서 메타이론적으로 뜨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도 서구이론에 기반한 메타이론적이 요소의 공부 분요. Inter-textual로서. 양명학으로는 안됨. 실체? 언어, 실천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것, illocutionary한 측면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어의적 현실표상만이 아니라.

뒤의 실천적 관심이 합의 안 되면 IR 간의 합의가 어렵지 않는가. 이 편집본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 챕터를 쓴다면? 해방 이후의 journal count가 아니라 한국적 IR이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고민하면 매우 어려움. 해방 이후로 쓸 것인지, 중국적 세계에 있을 때부터 쓴 것인지, 서구 이론이 여기에 들어온 것부터 쓸 것인지, 현실문제와 연결해서 쓸 것인지 다 정리되어야 함. 편집자들도 개별 저자들의 논의를 들음.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라고 할 수 있음. 이란 챕터를 보면 이란의 국제정치를 실제 하는 국제정치학자들 중 IR한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도 NSC의 행위자 중 IR전공자 없음. 그 사람들의 수준을 ‘인식한’ 이론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IR을 잘 아는 것은 아님. 캠브리지 학파처럼 그 시대의 주류적 대표 사상가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 없고, 평균 수준의 사람을 하는 것이 암. Intertextual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고, 개념사적으로 현실을 이끄는 주요 개념들, 민족주의, 그런 개념들을 파고 가서 그 사람들의 개념이 현실을 어떻게 이끄는지 보는 것이 중요. 이는 journal count로 안 됨. 그러나 중국 정책가들도 나름의 이론이 있지만, 수준 낮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적 현실로 세계가 움직임. 그런 이론 수준이 낮아도. 친야칭 등이 낮아도 학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님. 맑시스트 이론 이후의 정치학은 copying이후고 이후는 constructing임. 아름다운 이론인 것도 중요한데, 현실의 저발전된 것의 이론화도 중요할 듯. 그런 면에서 이를 쪼개서 챕터 쓰는 것도 중요한데, 뭘 하나? 서구와 비서구를 다시 link시키고 비서구의 쪼개진 현실 자체를 이론화해야 함. 일반 국제정치학 등. Worlding with the West를 성취해야 진짜 IR 이론이 되어야 함.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 실제 실천은 별개의 문제임.

그 나라, 이 사람들이 IR을 review해도 이 나라의 국력에 따른 정도만 IR의 이론가들은 사고 가능. 터키인이 터키인은 자기 생활세계의 느낌이 있고 국제정치적 이론가의 생활세계가 덧붙여지는데 체험적 측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한국도 1980년대의 이론화할 때, 반미, 현실주의적임. 중견국 시민이 된 이후, 외국인이 나를 볼 때의 배타적인 정체성, 선진국 IR의 학자임. International의 범위가 급속히 넓어짐. 중국도 그러함 세계를 설명해야 함, G2. 민주주의 이해도 적고. 중요한 것은 이론가의 생활세계의 수준, top-down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적 이론가들은 한국의 생활세계 벗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듯. 이를 벗어나는 것, 정말 cosmopolitan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느 identity에도 보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험해보지 않으면 global하기 어려움. 말로는 beyond the west해도 그 사람들의 생활 체험하는 것 중요. 미국은 워싱턴에 앉아서 외국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global해졌다고 착각하는데. 이론이 얼마나 생활세계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가가 중요한 듯. 미국에 유학가는 이유는 미국 정치학이 나온 생활세계를 체험하는데 의미가 있음. 그 나라의 IR과 생활세계를 동시에 경험해야 얻는 지식이 있음.

이규원: 한국의 국제정치학? 이렇게 많은 시도가 있는데 그 배경의 국제정치학의 주류와의 연계가 있는데 그와 연결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민이 부족함. 합의, 확신이 없음. 그래서 시류에 편승해서 편하게 가는 것이 있는 듯. 어떻게 할 것인가의 생각. 한국 국제정치학 논의를 들으면 답답.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류에 편승할 때, 뒤집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설득을 당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

조은정: 국제정치학자의 생활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속해있는 영역 이상을 경험해야만 세계적 수준, 이론이 세계적 차원에 보편성을 띨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90년대, 세계화 물결 등.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화두로 정책 등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가장 보편적, 세계적 이론을 개발한다?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지? 그 플랫폼을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내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배웠던 것부터 local/regional을 버무려서 나갈 것인지, 그 시작이 내가 온 것에서 나가야 할 것인지 헷갈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내가 속한 세계 이외에 실체적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 것인지, 혼동이 될 것인지.

전재성: 이론가들, 개별 국가별 이론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relevant한 시간, 공간적 개념은 있는 듯. 한국, 중국 이야기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한국적, 중국적, 일본적. 동북아, 동남아시아 등을 생각한 듯. 대부분 기능적이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정도의 공간 범위의 특수성을 보는 듯. 아주 global한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국제정치적인 것이 작동하는 것. Regional-complex를 보는 쪽. 미국 이외에 대부분 지역, 아태 개념이나 indo-pacific들이 경합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그냥 global로 가긴 어렵고. 기능적, 보편적 주제도 하지만 지역적인 것을 하고 비교, 합쳐진 global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듯. 국가별 theorist들이 나오지만 이론, 중동학자들과 동아시아 학자들 다름. 그 mid-level이 다른 듯. 대부분 한중, 한일 양자관계로 생각함. 동북아 왜 싸우나?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개별 국가들이 싸우는 구조적 원인을 싸워서 블레이밍을 안하는데. 지역을 이론화 못해서 답답함. 우리 둘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다 설명하면 우리는 구조의 피해자이므로 먼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움. 그게 share되고 개념으로 자기 잡으면, minority들에 동아시아 구조 개념이 자리 잡으면 허상이어도 개념이 현실 만들어서 담론적 실천이 가능. 행위자들에 박힐 현실 선도적 개념을 이론화 작업이 먼저 되면 대박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론가로서 쌓을 game이 있음. 그게 popularize되어야 함.

역사학자들은 문제들이 시공적으로 국소화됨,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 주장만 하는데. 지금은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제국 부활의 공포를 둘러싼 싸움이다. 메이지 제국 대 2000년 중화 제국 부활의 싸움이므로 진정한 international 싸움이 아니다. 동아시아 평화가 오려면 주권국가들 간의 상호인정이 되어야 함. 동아시아 EU어떻게 가능? 여기서의 근대 이행의 완성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함. 이 명제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share하도록 이해시키는가? 19-20세기 초의 근대화 모델 등에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합의, 그 안의 제국 건설부터 합의가 깨짐. 손문 이후. 우리가 동양 삼국 외치던 시기. 저항적 민족주의 단계의 합의가 동아시아에 있었는데 근대화 민족주의부터는 경쟁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부터 싸워짐.

Claim, 남중국해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 학자들이 답하기 위해 공부할 incentive가 생김. 역사적인 claim도 있고, policy적인 의견부터. 국제법적인 것을 가져와서 하는 쪽, 말이 딸려서 못하는 쪽, 광동/상해 학파 등도 있음. 워싱턴 D.C 등 이것이 말을 못하지만 서구 IR의 개념을 가져와서 빠른 속도로 하는 펀드, 프로젝트 구조도 중요. 학자들이 정책결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국, 이후 중국. 일본은 학자들 무력함. 대부분 관료 좌지우지. 학자의 존경의식도 적음.